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주간 전남농업

VOL. 243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7월 넷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기원, 배.사과 과수화상병 도내 유입방지 총력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개최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장성군, 신소득 약용작물 '지황' 육성 박차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07.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남농기원,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성황리 개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t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 5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2 ~ 24도, 최고기온 : 28 ~ 32도)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4 ~10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 6

▸ 사과 생육 및 생산량

▸ 포도 생육 및 생산량

▸ 복숭아 생산량 및 출하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4

▸ 전남농기원, 해남산 친환경가바쌀 50톤 미국 수출협약 체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15

▸ 제5호 태풍「다나스」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 전남농기원, 배.사과 과수화상병 도내 유입방지 총력

▸ 약용작물 '당귀' 종자 고르고 보관하는 법

▸ 농촌진흥청, 채소·과수 탄저병 철저한 방제 당부

▸ 새로운 벼 바이러스병 '벼남방검은줄오갈병' 대비해야

▸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 깨끗한 물관리부터!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 22

▸ 태풍 '다나스' 피해 최소화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전남농기원,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개최

▸ 전남농기원, 체지방 감소시키는 녹차스틱분말 음료제품 개발

▸ 전남농기원, 종합검정실 담당자 벼 엽분석 교육 실시

▸ 2019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추진

▸ 농촌진흥청에 꿀벌 세상 보러 오세요!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시험검사 우수

▸ "여름철 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 '고소애' 간편하게 먹고 암환자 영양·면역력 쑥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34

▸ 순천시, 한돈협회 순천시지부, ‘이웃과 돼지고기 나눔’ 행사 추진

▸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 담양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구체화 위한 협의회 개최

▸ 곡성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농가 필수 의무교육 실시

▸ 곡성군, 추억의 맛 곡성 삼기 흑찰옥수수 인기

▸ 고흥군, 벼 이삭거름 적기 적량 사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

▸ 보성군, 안심하고 드세요~보성 녹차, 군수가 품질 보증한다!

▸ 해남군, 친환경쌀 서울 도봉구 학교급식 공급

▸ 함평군, 열대 거세미나방 예찰 강화 나서

▸ 장성군, 신소득 약용작물 ‘지황’ 육성 박차

8. 해외 농업정보 ····· 44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관측)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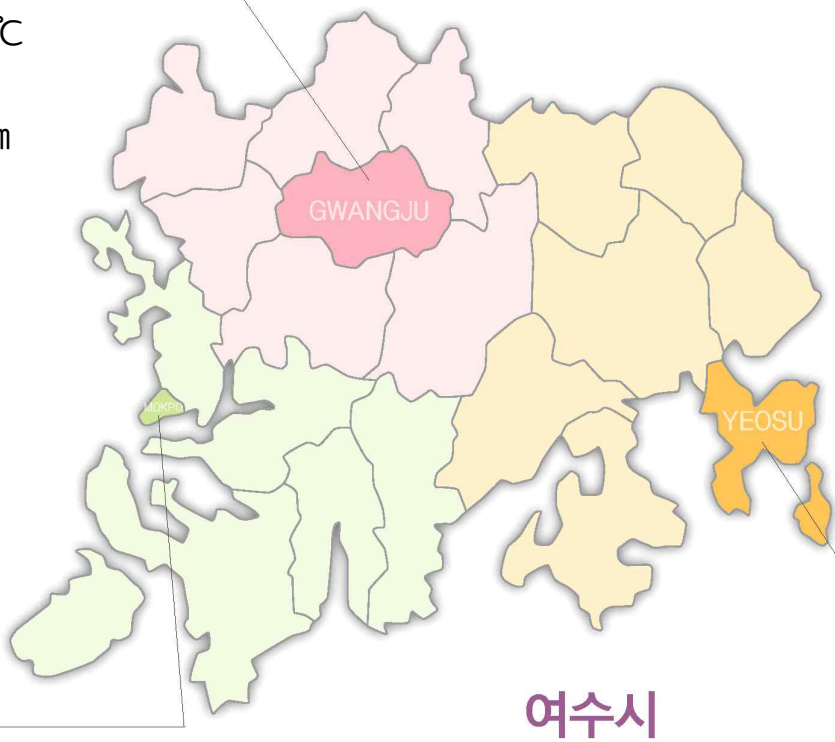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우수식품정보시스템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7.0℃
  (평년대비 0.3 높음)
- 최고기온 : 30.4℃
  (평년대비 0.5 낮음)
- 최저기온 : 23.6℃
  (평년대비 0.0)
- 강 수 량 : 7.8㎜



목포시

- 평균기온 : 25.6℃
  (평년대비 0.4℃ 낮음)
- 최고기온 : 27.9℃
  (평년대비 1.7℃ 낮음)
- 최저기온 : 23.4℃
  (평년대비 0.1℃ 높음)
- 강 수 량 : 5.6㎜

여수시

- 평균기온 : 25.8℃
  (평년대비 0.3℃ 높음)
- 최고기온 : 27.6℃
  (평년대비 0.8℃ 낮음)
- 최저기온 : 24.0℃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7.3㎜

2 농산물 관측정보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2019년 주요 과일 생산량 전망 (전년 대비)
사과 6%↑
배 13%↑
포도 4%↓
복숭아 8%↑
감귤(하과수) 2%↑
7월 주요 과일 출하 및 가격 전망 (전년 대비)
햇사과
배
감귤 (하우스온주)
포도
복숭아
7월 출하량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7월 가격
강보합
상승
강보합
상승
하락

사과 생육 및 생산량

생육 : 올해 사과 생육상황 전년보다 양호

- 6월 말 기준, 올해 사과 생육상황은 봄철 냉해로 낙과 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는 개화기 저온피해가 적어 동녹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체 병해충 발생 정도는 대체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강원 영월, 경북 봉화·의성 등에서는 일부 과원을 중심으로 부란병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경북 청도, 충북 충주 등에서는 생육기 고온·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진딧물 발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량 : 2019년산 사과 생산량 전년보다 6%증가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한 50만 3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통계청 발표)하였으나, 작황 호조로 단수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도 생육 및 생산량

생육 : 시설 및 노지포도 생육상황 전년보다 양호

- 6월 말 기준, 포도 생육상황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4월 초 일시적인 기온 하락으로 전북 남원,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무가온 시설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지포도의 경우 경기 지역은 개화가 다소 늦었으나, 현재 생육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과 충북의 경우 일부 과원에서 저온으로 인한 꽃떨이 현상이 발생 하였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병해충 조사 결과, 금년 병해충 발생은 전년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노린재 발생률은 경북 김천·상주, 대전광역시에서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생산량 : 2019년산 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6월 말 기준, 포도 생육상황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4월 초 일시적인 기온 하락으로 전북 남원,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무가온 시설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지포도의 경우 경기 지역은 개화가 다소 늦었으나, 현재 생육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과 충북의 경우 일부 과원에서 저온으로 인한 꽃떨이 현상이 발생 하였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병해충 조사 결과, 금년 병해충 발생은 전년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노린재 발생률은 경북 김천·상주, 대전광역시에서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복숭아 생산량 및 출하

생산량 : 2019년 복숭아 생산량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 감소(통계청 발표)하나, 유목의 성목화 및 작황 호조로 단수가 11% 증가하여 전년보다 8% 많은 22만 4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천도계 및 유모계가 각각 전년 대비 7%,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올해 복숭아 비상품(非上品)과 발생은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병해충 발생률도 적어 봄철 냉해로 인한 기형과 및 폭염에 따른 핵할 등이 많았던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 : 7월 복숭아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7월 복숭아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7%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는 천도계가 전년 대비 6%, 유모계는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 7월 복숭아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9,5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5천~1만8천 원으로 전망된다.
- 7월 백도(유모계) 평균 도매가격도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1만 7,300원)보다 낮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4천~1만7천 원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7. 22.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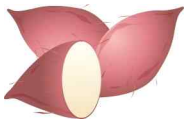
쌀(일반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80	45,980	39,533	↑ 23.9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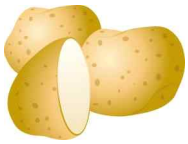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200	180,800	155,600	↑ 27.4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kg	26,400	29,600	↓ 4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750	45,200	33,053	↓ 20.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0kg	20,000	21,000	↓ 3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500	28,800	25,667	↓ 22.1

채소류

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kg	-	7,6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75	-	7,334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8kg	5,500	5,800	↓ 3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825	8,175	5,847	↓ 5.9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0개	41,000	43,333	↓ 9.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167	45,133	50,180	↓ 18.3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0개	11,800	12,000	↑ 1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825	9,850	12,460	↓ 5.3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30kg	560,600	560,600	↓ 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3,600	593,750	368,300	↑ 52.2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kg	44,600	48,400	↓ 2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600	57,180	43,573	↑ 2.4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7,500	125,000	125,000	↓ 28.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0kg	8,600	8,400	↓ 3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600	13,500	16,967	↓ 49.3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0kg	29,000	31,200	↓ 3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600	43,360	31,987	↓ 9.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kg	1,800	1,780	↑ 1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05	1,600	1,509	↑ 19.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5kg	13,200	13,200	↓ 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400	14,500	13,937	↓ 5.3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개	17,800	18,8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275	17,900	15,667	↑ 13.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kg	18,000	17,400	↓ 2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800	25,250	17,717	↑ 1.6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5kg	15,200	13,600	↓ 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100	16,600	13,430	↑ 13.2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kg	40,200	42,800	↑ 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250	37,600	42,178	↓ 4.7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5kg	66,400	65,600	↑ 9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0,600	34,600	50,497	↑ 31.5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kg	42,000	42,000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00	41,800	43,267	↓ 2.9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30kg	502,600	498,6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600	497,600	526,333	↓ 4.5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kg	13,000	13,200	↓ 1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50	14,950	14,223	↓ 8.6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2kg	6,600	6,600	↓ 1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600	7,416	7,445	↓ 11.3

축산물(소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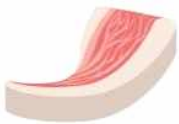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0g	8,403	8,454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043	8,070	7,508	↑ 11.9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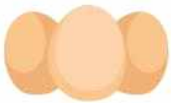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kg	5,052	5,088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8	4,859	5,138	↓ 1.7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00g	1,947	1,917	↓ 1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4	2,292	2,279	↓ 14.6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30개	5,131	5,169	↑ 2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71	4,264	5,747	↓ 10.7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22)	1주일전 (7/15)	전년대비
1L	2,616	2,616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6	2,528	2,542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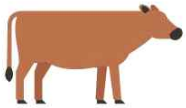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7. 22.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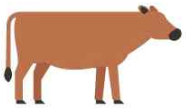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51	5,633	5,551	↑ 0.3	↑ 1.8
거세	6,814	6,920	6,840	↓ 1.5	↓ 0.4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84	3,347	3,104	↑ 1.1	↑ 9
수	4,274	4,323	4,023	↓ 1.1	↑ 6.2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00	3,279	3,41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4	↓ 6.2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76	476	22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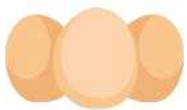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3	386	45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8	↓ 16.0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99	999	1,45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0.0	↓ 17.7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55	991	7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6	↑ 26.5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3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전남농기원, 해남산 친환경가바쌀 50톤 미국 수출협약 체결

- 전남 농특산물 미국 수출길 활짝!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미국 LA 라디오서울 본사에서 전남농업기술원과 해남군, 라디오서울, M-GRAIN,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간에 해남산 친환경가바쌀과 전남 농특산물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협약체결로 해남산 친환경가바쌀을 연간 50톤(2억 원 상당) 이상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쌀 이외에도 전남산 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교민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 전남농기원은 지난해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에 174톤 5억 원의 쌀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올해에는 해남산 '친환경가바쌀'을 비롯해서, 장성에서 생산하는 '조명1호쌀' 등 350여 톤을 미국, 중국, 몽골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가격 변동폭이 커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들을 위해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과 함께, 해외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제5호 태풍「다나스」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 농촌진흥청, 고춧가루 곰팡이 발생 줄이는 저장 요령 소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토요일 20일 남부 내륙 지방에 관통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농업인 대상 태풍 대응·피해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대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 벼농사 〉

  - 집중호우에 대비 논두렁과 하천 제방 등을 정비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 물에 잠기면 벼 잎 끝만이라도 나오도록 가능한 일찍 물을 빼주고, 식물체에 묻은 흙앙금과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준 후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등을 방제해 준다.

- 〈 밭작물 〉

  - 고추는 지주를 손질하고 단단히 고정시켜 쓰러짐을 방지한다.

  - 고추, 콩 등 밭작물은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깊게 정비한다.

  -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서둘러 수확하고, 비가 내린 후에는 병해충발생이 많아지게 되므로 적용약제로 방제한다.

- 〈 과수 〉

  -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주고 받침대를 받쳐준다.

  - 과수원 배수로를 정비하고 토양 유실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풀, 볏짚 등을 피복하여 토양유실을 방지한다.

  - 수확이 가능한 과실은 태풍이 오기 전에 서둘러 수확하여 보관한다.

  - 부러진 가지는 기부를 깨끗이 정리하여 보호제를 발라준다.

- 〈 축산 〉

  - 축사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바닥에 보관중인 사료는 높은 곳으로 옮겨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

  - 가축분뇨 저장시설과 퇴·구비장의 배수구를 점검하여 빗물이 들어가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집중호우 후에는 가축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축사소독을 실시한다.

- 〈 농업시설물 등 〉

  - 시설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우스, 축사 등 각종 농업시설물은 비바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대비 한다.

  -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밀폐 후 비닐끈으로 고정한다.

  -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골재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피복한 비닐을 찢어 골재 보호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배.사과 과수화상병 도내 유입방지 총력

- 전문가 초청, 담당공무원 대응요령 각인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과수화상병이 올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전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도 유입 방지를 위해 시군 실무담당 공무원들에게 대응요령 교육을 긴급하게 실시하였다.
- 과수화상병은 배·사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세계적으로 치료 약제가 없고, 병이 발생하면서 갈색이나 검은 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여 과수화상병이라 불리우며, 일단 발생하면 과원은 폐원하고, 3년 동안 배·사과의 식재가 불가능하다.
- 전남도에서는 아직까지 미발생 지역으로 3월에 겨울철 사전방제를 전 농가에 실시하였으며, 예방과 현장 신속대응을 위해 도내 배·사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19시군에 현장기술지원 하고, 간이진단 키트를 포함한 '과수화상병 119 가방'을 꾸려 배부하였다.
- 아울러,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배·사과 재배과원에서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의심시료는 즉시 채취하여 간이분석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사 세균병 등으로 판명되었다.
- 이에 전남농기원에서는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송장훈 박사를 초청,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증상, 세균 발생환경, 묘목관리, 전정·적화 관리 요령 등 현장에서의 대응요령을 상세히 각인 시키고, 간이분석 키트 활용 실습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 '당귀' 종자 고르고 보관하는 법

- 꽃피면 50일~80일 후에 씨받아야... 말린 뒤엔 저온 보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약용작물 '일당귀' 종자 채취(채종) 시기를 맞아 좋은 종자 고르는 법과 보관요령을 제시했다.
- 일당귀 잎은 쌈채소로,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한다. 2017년 기준, 전국에서 95헥타르(ha)를 재배했으며 한 해 622톤을 생산한다.
- 농촌진흥청은 일당귀 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혁신의 하나로 종자 채취 시기, 우량종자 선택과 보관 방법을 연구했다.
- 일당귀는 꽃이 핀 뒤 50일~80일 사이인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종자를 따는 것이 좋다. 80일을 넘기면 열매가 익어서 종자가 둘로 나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종자는 소금물에 가라앉은 것을 이용한다. 연구진이 물과 소금물을 이용하여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물에 뜨는 종자의 발아율은 19.5%였으나 가라앉는 종자는 82% 발아율을 보였다.
- 채취한 종자는 말린 뒤 4도(℃) 이하에 보관한다. 실제, 실온(20℃)에서 보관한 종자의 발아율은 86%였지만, 저온(4℃) 보관한 경우는 98.5%로, 10% 이상 차이가 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농가에서 우수한 일당귀 종자를 골라 수확하고, 제대로 보관해 약용작물 생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채소·과수 탄저병 철저한 방제 당부

- 고온 다습한 날씨에 확산 우려... 병든 열매 즉시 따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덥고 습한 7월, 고추와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탄저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 고추에 나타나는 탄저병의 첫 증상은 오목한 암녹색 점이다. 점차 둥근 겹무늬가 커지면서 병반 위로 주황색 점들이 나타난다. 이 점이 포자 덩어리다.
- 병반에는 점액질의 포자 덩어리가 붙어 있다. 여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점액질이 녹아 포자가 빗물에 섞여 주위의 고추 열매에 튀면서 병이 빠르게 퍼진다.
- 병든 열매가 달린 채 그대로 두거나 이랑 사이에 버리면 약제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가 내리기 전과 후, 열매 표면에 골고루 약액이 묻도록 약제를 뿌려 준다.
- 사과는 일찍 성숙하는 조·중생종 사과(쓰가루, 홍로 등)나 늦게 성숙하는 만생종 후지 품종에서도 최근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다.
- 탄저병은 습도가 높은 기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장마 전·후 방제를 철저히 한다.
- 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전 병원균 밀도를 낮춰야한다. 과수원 내 죽은 가지를 잘라 태우고 병든 과일은 묻어둔다.
- 7월 상순부터 중순께 나무 윗부분에 최초로 발병한 과일은 즉시 따내서 전염원 전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새로운 벼 바이러스병 '벼남방검은줄오갈병' 대비해야

- 농촌진흥청, 매개충 방제 지도 · 진단 방법 확립해 대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벼남방검은줄오갈병'의 매개충이 되는 흰등멸구의 중국 내 발생 밀도가 크게 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당부했다.
- '벼남방검은줄오갈병'은 2001년 중국에서 발병 후 확산해 2010년, 일본에서도 확인되었다. 중국에서 날아드는 흰등멸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 농촌진흥청은 아직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벼남방검은줄오갈병' 피해를 막기 위해 '벼 바이러스 동시 진단 키트'를 이용한 감염 초기 유전자 진단법을 개발했다.
- 벼남방검은줄오갈병의 유전자 진단법을 활용하면 피해 확산도 막을 수 있다.
-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병의 일부 유전자가 확인된 이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은 '벼줄무늬잎마름병', '벼오갈병', '벼검은줄오갈병' 3종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외에 새로운 벼 바이러스병에 대비해 진단법을 개발 중이다.
- 벼가 잘 자라지 않거나 누렇게 변하는 등 증상이 발견되면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42)에 진단을 의뢰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 깨끗한 물관리부터!

- 급수조는 매일 청소, 급수 시설도 정기적으로 소독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병원성 미생물 증식 등으로 가축 급수시설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 여름철에는 가축들이 고온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가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기가 오염되면 전체 가축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 가축이 곰팡이와 세균으로 오염된 급수조의 물을 마시면 대장균증과 살모넬라증 등 소화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발열, 설사, 패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분변으로 배설된 균이 주변 가축에게 전파될 수 있다. 증상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격리시키고 수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 농촌진흥청은 간이검사기를 이용해 축산농가 급수조의 오염도를 측정했다.
- 수조를 매일 청소하는 농가 급수조와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농가의 급수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급수조에서 15배 이상의 오염도를 확인했다.
- 가축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급수원에서부터 급수라인까지 정기적인 관리와 관찰이 중요하다.
- 물탱크와 급수라인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며, 물을 주기 전에는 급수조의 물 상태와 냄새를 확인한다.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물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오염원을 찾아 제거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및 홍보안내

태풍 '다나스' 피해 최소화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피해 우려지역 중심으로 농업인 대상 농작물 관리요령 전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북상함에 따라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지역의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 '사전 현장기술지원단'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전문가 27명으로 구성, 9개 반으로 나눠 각 지역에 파견된다.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고추·참깨·콩 등 주요 밭작물, 벼,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리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 한편,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물길(배수로)정비와 노후 시설물을 보강해야 한다.
- 벼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밭작물은 쓰러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시설을 튼튼히 세운다. 과수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와 받침대를 보강하고, 가지를 유인해 고정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은 비닐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기초강화를 위한 보조지지대를 보강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개최

- 정보화농업인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 1인 미디어 시대 대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순천 청소년수련원에서 정보화농업인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해 "5G 시대, 정보화 기술로 스마트 농업경영 실현!!" 이란 주제로 특강, 공감토크, 우수사례 발표, 시군 농·특산물 전시·홍보, 스마트농업 정보기기 시연과 농업 정보화 유공자 표창을 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새롭게 시도하는 전라남도 청년농부TV가 선보였다. 『전남 청년농부』는 지난 6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행한 전라남도 청년농부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청년농부들이 함께 만드는 인터넷 유튜브 채널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인터뷰가 인터넷 유튜브 채널 『전남 청년농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회식에서 "미래 스마트 농업의 중심은 사람과 자연환경에 있으며,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전라남도의 새천년 비전으로 추진하여 청정하고 아름다운 섬, 바다, 하늘 등 전남의 풍부한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체지방 감소시키는 녹차스틱분말 음료제품 개발

- 여름철, 시원한 녹차음료가 다이어트에 좋아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여름철에 수확한 녹차의 고카테킨 추출물 기능성을 이용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 녹차스틱분말 음료제품을 개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 전남농기원은 그동안 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우려마시는 번거러움을 덜고 차의 기능성에 다양한 맛을 가진 천연식물 자원을 혼합하여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다이어트 녹차스틱분말 음료제품은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여름녹차를 주원료로 하여 페퍼민트, 스테비아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여름철 시원한 물에도 잘 녹고 간편하게 타서 마시기 좋은 스틱포장 분말제품을 선보이게 되었다.
- 특히, 제품에 사용한 녹차는 폴리페놀의 카테킨 성분이 가장 높은 여름철에 수확한 찻잎으로 추출과 농축, 건조과정을 거쳐 유효성분을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활성화가 기대된다.
- 또한 녹차의 유용성분인 카테킨류의 건강기능성 연구결과 여름녹차 추출물이 무처리에서 보다 세포분화억제능력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밝혀냈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외국산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보다 1.5배, 마테차 추출물보다 1.3배 지방전구세포분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얻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종합검정실 담당자 벼 엽분석 교육 실시

- 실시쌀소득보전직불제 벼 엽분석 교육으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와 고품질 쌀 적정생산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분석요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벼 엽분석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농가의 비료 적정 사용 중간 점검을 위한 벼 엽분석 시기에 벼 잎을 채취하는 방법에서부터 전처리 과정, 성분 분석요령,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 기술지도 활용 방법까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 벼 엽분석은 출수 30~40일 전에 엽색이 진한 필지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벼잎 질소함량에 따른 질소질 이삭거름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비료사용 감축효과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 전남도 내에는 현재 21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검정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 사업의 지원을 위해 토양검정 11,925점과 엽 분석 550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엽분석은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인식전환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비료를 줄 때 적정량의 질소비료 사용이 중요하며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출수 전 15일이 적당하다”며 “농업기술센터의 정밀분석과 적정시비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단백질 함량이 낮은 밥맛 좋은 쌀 생산과 비료 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19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추진

- 다음달 30일까지 각 시 · 군농업기술센터서 신청서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 선정은 농업인의 자긍심 향상과 미래농업인재에게 귀감이 되는 농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추진해 오고 있다.
-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백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농업기술명인' 상징표를 부착할 수 있다.
- 농업기술명인 신청대상은 전체 영농 경력 20년 이상인 농업인 가운데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분야 중 1개 분야에서 15년 이상 농업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현재 농축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생산기술개발, 농산물 가공·유통·상품화 등 각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가 가능하며 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 농업기술명인 선정을 위한 신청자 접수는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서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증빙서류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 농업기술명인 선정에 관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부서(거주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에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총 46명의 농업기술명인을 선정했다. 선정한 명인들은 현장 명예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각각 위촉되어 작목별 기술지원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 또한 정부혁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최고의 농업기술과 남다른 노력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기술명인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에 꿀벌 세상 보러 오세요!

- 17일부터 2주간 '꿀벌이 만드는 육각형 세상 특별전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꿀벌과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농업과학관(전북 전주시 농생명로) 1층 전시실에서 '꿀벌이 만드는 육각형 세상 특별전시회'를 연다.
- 이번 전시회는 '꿀벌나라 이야기', '꿀벌이 주는 선물', '꿀벌이 사라진다면' 등을 주제로 전시 영역과 체험 영역으로 진행된다.
- '꿀벌나라 이야기'는 꿀벌 집안의 구성원들이 가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꿀 생산 우수 품종 '장원벌'과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토종벌 '한라벌'도 전시된다.
- '꿀벌이 주는 선물'에서는 꿀, 봉독, 화분 등 다양한 양봉산물과 양봉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전시한다.
- '꿀벌이 사라진다면'에서는 화분매개 등 꿀벌의 가치와 공익적 효과를 소개하고 화분 매개로 생산되는 과일을 소개한다.
- 또한, 양봉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 양봉, 고정양봉과 융·복합 산업 등에 대한 내용도 전시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집 구조와 꿀벌 가족을 알아보는 퍼즐 맞추기, 여왕벌 찾기, 꿀벌 알 관찰하기, 채밀기 돌려 꿀 모으기, 꿀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시험검사 우수

- 식약처 평가에서 12년 연속 '적합' 판정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지영)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한 '2019년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시험·검사 능력 평가'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매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고 있다.
- 평가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발색제보존료착색료산화방지제 등 이화학 항목, 잔류 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및 한우 유전자 등이다.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12년 연속 매년 시험·검사기관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온 전남 유일의 축산물 법정 시험·검사 기관이다.
- 정지영 소장은 "이번 평가로 신뢰받는 축산물 검사 기관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정밀 분석 장비의 보강과 검사 인력의 지속적인 분석능력 향상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축산물안전과'에서 보다 강화된 검사기준에 맞춰 축산물 분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여름철 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 식용버섯과 닮은 독버섯... 소량만 먹어도 인체 치명적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는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우리나라 자생 버섯은 1,9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00여 종(21%)뿐이며, 나머지는 독성이 있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
-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는 덥고 습해 버섯이 잘 자라는 7월부터 산행이 많은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 독버섯이 식용버섯과 생김새, 서식지, 발생 시기 등이 비슷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산광대버섯', '알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은 치명적인 균독소 아마톡신이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 알광대버섯 한 개에는 성인 남성 1~2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양의 아마톡신이 들어있다.
- 독버섯인 흰알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 흰주름버섯과 모양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성숙한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은 독버섯인 광대버섯류와 달리 뚜렷한 암자갈색을 띠며 대 아래쪽에 대 주머니가 발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 맹독성인 개나리광대버섯도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과 구분하기 어렵다. 노란달걀버섯은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과 달리 갓 둘레에 뚜렷한 홈이 있고, 치마 모양의 턱받이가 담황색을 띤다.

- 잘못된 상식이나 민간 속설만 믿고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식용 가능하다는 속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버섯을 섭취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 이미 섭취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빨리 환자를 토하게 하며, 병원에 방문할 때는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져가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공원식 과장은 "검증되지 않은 야생버섯 섭취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느타리, 팽이, 영지, 표고 등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한 버섯을 먹도록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고소애’ 간편하게 먹고 암환자 영양·면역력 쑥

- 농촌진흥청, 고소애 이용 암환자 대상 면역력 개선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의 장기 복용이 수술 받은 암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고소애는 2016년 3월,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돼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는 식용곤충이다. 영양 성분은 단백질 53%, 지방 31%, 탄수화물 9%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다.
- 기능성 검토 결과, 항치매, 항암활성, 항염증, 모발 촉진, 항비만, 항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 연구는 고소애를 활용한 병원 식사, 영양 상태와 면역에 대한 임상 영양 연구로, 수술 후 3주 동안 고소애 분말을 섭취한 환자와 기존 환자식을 섭취한 환자를 비교했다.
- 그 결과, 고소애식을 먹은 환자는 기존 환자식 대비 평균 열량은 1.4배, 단백질량은 1.5배 높았다. 또한, 근육량 3.7%, 제지방량(근육과 골격)이 4.8% 늘고, 환자의 영양 상태 지표)도 높았다.
-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이어 췌담도암과 간암 환자 109명을 수술 직후부터 퇴원 후까지 2개월간 면역과 인바디(inbody: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내장지방 등)를 측정했다.

- 환자의 영양 지표 중 건강한 세포막의 상태를 반영하는 위상각(Phase angle)의 변화량(수술 후 첫 외래→ 복용 종료 시점)이 고소애를 먹은 환자군에서 2.4% 높게 나타났다.
- 면역세포 중 자연살해세포(NK cell)와 세포독성 T세포(Cytotoxic T cell)활성도가 고소애 섭취 환자군에서 각각 16.9%, 7.5% 늘었다.
-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상처 치유와 체력 회복을 위해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식품을 먹어야 한다.
- 그러나 수술 후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질이 단단한 육류나 생선류를 충분히 먹기는 어렵다. 조리를 위한 번거로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따라 느는 것도 문제다.
- 가루로 된 고소애식은 섭취도 간편하다.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방혜선 곤충산업과장은 "식품공전 등록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고소애가 수술 후 환자의 근골격 형성, 면역력 개선 등에 효능이 밝혀진 만큼 환자식은 물론, 건강기능성식품, 의약품 소재로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순천시, 한돈협회 순천시지부, '이웃과 돼지고기 나눔' 행사 추진

- "맛있는 한돈 먹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

- 한돈협회 순천시지부에서는 지난 17일(수) 순천시청에서 한돈자조금과 순천광양축협 후원으로 '한돈 나눔·기부 행사'를 추진했다.
- 이번 나눔행사에서는 돼지고기 3kg 규격 , 총 641세트로 1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가 기부됐다.
- 기부된 물품은 순천시 여성가족과를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등 62개소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 한돈협회 순천시지부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 돼지고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설 명절을 맞아 나눔행사를 갖었다.
- 한돈협회 손현철 순천시지부장은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 되는 등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외된 지역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행사를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은 "양돈농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순천시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 전남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이하 빛가람점)이 누적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015년 11월 개장한 빛가람점이 이달 기준 참여 농가 472명, 소비자회원 8,775명을 넘어서는 등 개장 3년여 만에 누적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 빛가람점의 이 같은 성과는 순수 지역 농산물 판매, 생산자 실명제, 수수료 10%, 신선함 유지를 위한 짧은 진열 기한 등 로컬푸드 공급 원칙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폭넓은 신뢰와 지지가 뒷받침됐다.
- 또한 출하농가 및 마을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개념, 필요성, 출하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농가 발굴 및 지속적인 농가 관리에 힘쓰며 로컬푸드 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 이를 통해 소농, 고령농은 다품목 소량생산 노하우를 구축하며 큰 농지 없이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 현재 빛가람점에는 참여 농가 472명, 268품목의 농산물과 가공식품 51개 업체, 176종의 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정육·제빵·반찬 3개 업체가 입점해있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점 누적매출 100억을 달성하도록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쓴 농가들과 로컬푸드를 애용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먹거리공급·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복지급식 등 관계시장 창출과 함께, 로컬푸드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데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나주시

담양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구체화 위한 협의회 개최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양군수, 농협담양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농협 통합 RPC 사업체계 구축 협의회를 진행했다.
- 이번 협의회는 담양군 농협 통합 RPC 사업체계를 최종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성농협 RPC는 도정라인을 보완 설치하고,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적당한 지점에 친환경 및 일반벼,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담양군과 농협은 2017년부터 RPC 시설·경영 컨설팅을 통한 현실에 맞는 통합방안 논의, 통합 RPC 성공모델 벤치마킹, 사업체계 구축 용역 등 지속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군은 RPC를 통합 운영할 경우 담양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함께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 된 물량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추곡수매, 수매 벼의 등급별 통합관리를 통해 쌀의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전국 최고의 브랜드 쌀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숲맑은 담양 쌀의 재배면적 확대와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전국 최다 공급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농가 필수 의무교육 실시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17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및 인증 희망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의무교육 시행 대비 인증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신청 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 의무교육은 2년에 1회 주기로 이수해야하며,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의 의무교육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 기준 및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축산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한편 곡성군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기 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신규 또는 재인증 농가에 수수료, 시료분석비용 등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인증 소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인증 유지 농가에는 최대 6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더욱 많은 농가들의 인증 참여를 통해 친환경 축산 확대와 축산 농가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추억의 맛 곡성 삼기 흑찰옥수수 인기

- 찰지고 구수한 맛이 일품, 단골 고객 많아 생산량 50% 직거래로 판매 -

-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전남 곡성 삼기 흑찰옥수수에 대해 전국 각지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며 지역 농가가 활기를 띠고 있다.
- 옥수수는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지금과 달리 고추, 깨, 콩 등을 심은 밭의 두렁에 심는 부수적인 작물이었다.
- 옥수수를 떠올리면 대부분 노란 색을 생각하지만 옥수수는 흰 색, 자주색, 얼룩색 등 다양한 색의 품종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중 삼기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자주색 흑찰옥수수는 찰지고 구수한 맛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누구나 한 번 먹어보면 자연스럽게 고정 고객이 되는 까닭에 재배 농가에서는 생산량의 약 50%를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 수확 현장에서 만난 흑찰옥수수법인 공창수 대표는 “택배를 받은 즉시 삶아 먹거나 냉동 보관해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라며 삼기흑찰옥수수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 한편 곡성군과 흑찰옥수수 농가들은 꾸준히 흑찰옥수수를 사랑해주는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에는 소비자 초청 팜파티를 개최하기도 했다. 팜파티에 참석한 소비자들은 옥수수 활용 음식을 시식하고, 옥수수 따기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출처 : 곡성군

고흥군, 벼 이삭거름 적기 적량 사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

- 품종, 출수기에 따라 이삭거름 적기사용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삭거름 적기사용 및 병해충 적기 방제 중점 기술지도에 나섰다.
- 군에서는 중만생종 품종은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삭거름 적기사용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 일제출장, 마을 앰프방송, 리플릿 등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쓰러짐, 수량 및 미질과 관련이 많으므로 품종별, 모내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비를 잘 판단해야하며 잎색이 짙은 논은 사용 시기를 늦추고 비료량도 줄여야 한다.
-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이삭패기 25일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이삭패기 15일전에 10a당 이삭거름 11~12kg 사용이 적당하다.
- 군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고 습하여 먹노리재 등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해충 예찰 강화와 벼 병해충 기본방제, 물 관리 등 벼농사 후기 관리에 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고흥군

보성군, 안심하고 드세요~보성 녹차, 군수가 품질 보증한다!

- 보성군, 군수 품질 인증평가 통해 고품질 차 생산 박차 -

- 녹차수도 보성은 지난 17일 봇재 2층 봇재홀에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했다.
- 관내 31개 차 제조 가공업체에서 출품한 38개 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 업체 33개 제품이 군수품질인증을 받았다.
- 보성군 군수품질 인증제는 올해로 시행 11년 차를 맞았으며, 품평 전문가 10명이 차의 외형, 찻물 색, 향, 맛, 우려낸 잎의 형상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관능평가로 실시된다.
- 인증 조건은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로 심의회에서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의회를 통과하면 보성군수가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군수품질 인증제는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품질 좋은 명품녹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성녹차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유영관 부군수는 명품 보성녹차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길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후 품질관리 및 개술개발 등에 힘 써달라.”고 말했다.

*출처 : 보성군

해남군, 친환경쌀 서울 도봉구 학교급식 공급

- 인수영농·땅끝황토친환경, 초중고 급식용 쌀 공급업체 선정 -

- 해남 친환경쌀이 서울시 도봉구 학생들의 밥상에 오른다.
- 해남군 인수영농조합법인과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 인수영농과 땅끝황토친환경은 2020년 3월부터 2년 동안 도봉구 초·중·고에 연간 200톤의 급식용 쌀을 공급하게 된다.
- 심사는 전국에서 2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20%), 생산시설 등 현지 심사(50%), 친환경쌀 공급계획 발표 및 학부모가 참여한 평가단 60여명의 식미 평가(30%) 등 엄격한 평가 항목을 적용했으며, 인수영농조합법인과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 4개소가 선정됐다.
- 인수영농조합법인과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해남관내 1,150ha 면적에서 친환경 재배를 통한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쌀 전문 도정 시설을 갖추는 등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농조합법인이다.
- 해남군은 서울과 광주, 제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연간 2,000여 톤의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마케팅으로 해남 명품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해남군

함평군, 열대 거세미나방 예찰 강화 나서

- 최근 열대 거세미나방이 전남 및 경남 지역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검역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열대 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 원산인 돌발 해충으로, 화본과 작물인 옥수수벼 등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기류를 타고 하루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 가량의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어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여수, 보성, 해남, 영암 등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 함평군도 대동면 월송리 사료용 옥수수 재배필지에서 예찰을 하던 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의해 최초로 발견, 국립농업과학원에 동정의뢰를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 센터 관계자는 “열대 거세미나방은 번식속도가 빨라 적기 방제가 안 되면 농가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적기 방제를 위해 지역농가의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장성군, 신소득 약용작물 '지황' 육성 박차

- 국내 품종 '토강', '고강' 육성 박차...농가 소득향상 기대 -

- 장성군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약용작물로 '지황'을 육성한다.
- 장성군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황'을 육성하기 위해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황은 다른 작목에 비해 재배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 다양한 교육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농업인이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군은 올해 미래농업대학에 약용작물학과를 개설하고 운영 및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토양관리, 식재방법, 제초관리 등 전문기술을 제공해 오고 있다.
- '지황'의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며, 날것은 생지황, 건조시킨 것은 건지황, 술에 넣고 찐 것은 숙지황이라 불린다. 혈당강하, 강심, 이뇨, 간 기능 개선, 항균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장성군이 육성하고 있는 '토강', '고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좋고 병에 강한 특징이 있다. 또한 국산품종은 기능성분인 카탈풀 함량이 외국산보다 높고 품질도 좋아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인다.
- 현재 장성에는 11농가가 1.1ha 면적에 지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군은 2021년까지 재배면적을 5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현대인에게 약용작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사업전망이 밝다"며 "장성을 약용작물의 최적지로 적극 육성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및 밀 선물가격, 대두 선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동반 상승세를 보임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8%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금주에 처음으로 기술매수와 대두 선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겨울 밀 생산량 1위인 캔자스에서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수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5%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대두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에 대한 지지로 상승했다. 미국 농무부 일기예보에 따르면, 주말 동안 평원과 중서부 상부에서 폭염이 끝날 것이라고 한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3%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1주일여 만에 최저가까지 떨어진지 하루 만에 반등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간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시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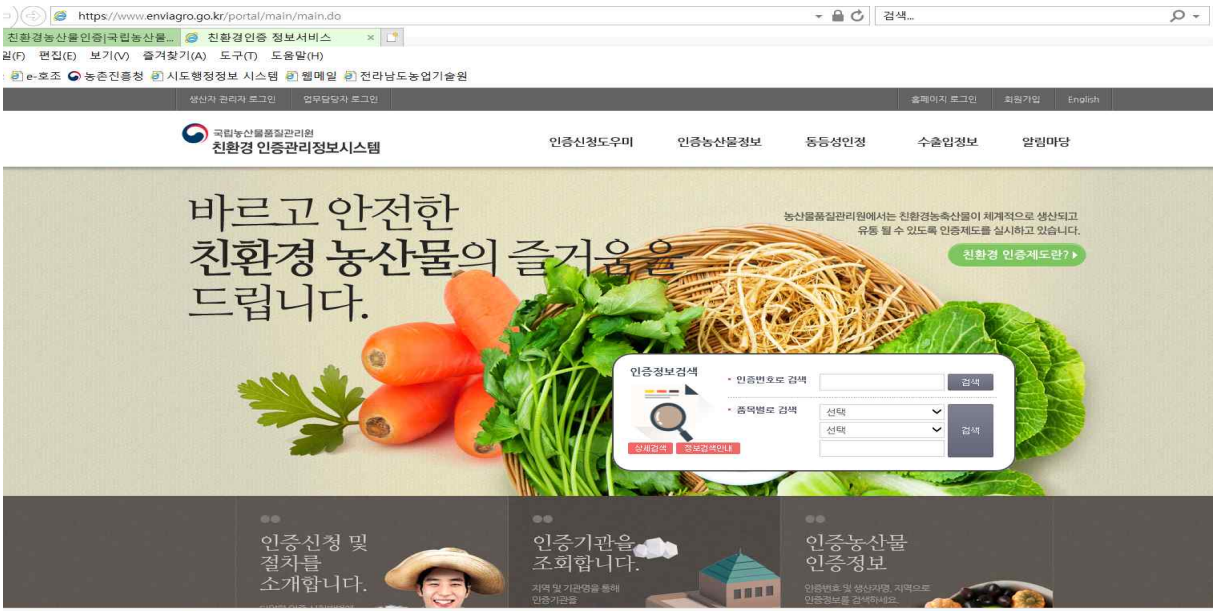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농식품 빅데이터(인증제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인증신청도우미, 인증농산물정보, 동등성인정, 수출입정보, 알림마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인증신청도우미에서는 인증신청안내, 인증기관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인증농산물정보에서는 인증표시소개, 인증정보, 직거래, 부정유통신고, 친환경인증통계,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정보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일괄검색 가능
- 직거래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가능
- 친환경인증통계는 조회구분, 업무구분, 기간, 시/도, 인증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



우수식품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는 우수식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인증정보보회, 정보광장, 온라인기술지원/상담, 민원신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우수식품인증제도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및 작도법
  -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 인증정보조회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조회, 전통식품품질 인증조회, 민간인증기관 지정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청렴한세상 - 근검, 두 글자를 유산으로 (다산 정약용)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43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